



박용철 강화군수, '민주평통 토론회 등 광폭 군정' 소화

통일준비 여성리더 역할 초청해 논의 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박용철 강화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 여성리더 초청 통일공감 토론회와 강화군 고위직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행보를 이어갔다.

박 군수는 지난 27일 강화읍 에버리치 호텔에서 '여성리더 초청 통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화군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여성자문위원, 강화군 여성리더,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은주 교수를 초청해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합동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협의회장은 "여성리더들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여성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군민들이 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안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리더로서 그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흔들리지 않는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어진 일정을 위해 강화군 고위직 4대 폭력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용철 군수는 군청 진달래홀에

도착하여 고위직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장에서 성평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강화군은 성 평등은 조직문화를 위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성인지 기반의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안명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장을 초빙하여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 평등은 온(ON)하다'라는 주제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 이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관리자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의 내



용으로 진행됐다.

강화군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고위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환경

을 만드는 데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군수의 광폭 행보는 10대 강화보궐 선거로 당선이 되어 취임하자마자 이어가고 있는데 뽀뽀한 일정에도 강화군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미순 기자

인천 특사경, '계양·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불법 건축·무단 토지 형질변경·불법 용도변경 등 17건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불법 건축 8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굴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 총집결

인천시, 2024 멜론뮤직어워드 30일 막 오른다

인천시는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가 11월의 마지막 날 인천으로 집결하는데 2024 멜론뮤직어워드(MMA 2024)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편 '멜론뮤직어워드'는 음악 플랫폼 멜론의 데이터와 전문가 심사, 이용자들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다. 2005년 온라인으로 시작해 2009년부터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개최해왔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천 영종의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개최됐는데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뉴 스트림 오브 케이-팝'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새 흐름을 제시하는 비전을 담았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올해 행사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000여 명의 해외 관객을 포함, 약 1만 2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여자)아이들, 에스파(aespa), 리이즈(RIIZE), 아이브(IVE) 등과 해외 아티스트로 덴마크 팝스타 크리스토퍼(Christopher), 일본 대세 유닛 요아소비(YOASOBI) 등이 최종 라인업에 포함돼 국내외 K-POP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



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론 앱과 웹,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일본은 유-넥스트(U-NEXT)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에서는 원더케이(1theK)와 멜론 유튜브 채널로 즐길 수 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시상식인 '2024 멜론뮤직어워드(MMA 2024)'를 연속 개최로 글로벌 마이스 선도 도시로 인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대규모 음악 이벤트를 유치해 도시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멜론뮤직어워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설공단, 어린이에게 겨울 추억 선물

인천어린이과학관, 4.5m 대형 트리...어른들은 연말 분위기

인천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다가오는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과학관 내 4.5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했다고 28일 전했다.

한편, 과학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했는데 어린

이들에게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선물이라는 평이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한 어른들도 연말 분위기가 연출되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욱 느껴진다고 과학관의 세심한 배려가 고맙다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